
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		
 금융감독원	<b>보도</b>	<b>2022.1.14.(금) 조간</b>	배포	2022.1.13.(목)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<b>담 당 자</b>	김 나 혜 사무관(02-2100-2836)
	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	송 용 민 사무관(02-2100-2951)
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	박 준 상 사무관(02-2100-2964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이 진 수(02-2100-2990)		고 선 영 사무관(02-2100-2991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강 선 남(02-3145-8020)		김 형 원 팀장(02-3145-8040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김 경 수 팀장(02-3145-7455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정 용 결(02-3145-6770)		이 건 필 팀장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김 준 환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장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중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장(02-3145-8072)

## 제 목 : 2021년 12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◇ '21.12월중 **소금융권** 가계대출은 **0.2조원** 증가하였으며, 전월 (5.9조원) 대비 **증가폭이 크게 둔화**되었습니다.

\* 증가액(조원) : ('21.8월) 8.6 (9월) 7.8 (10월) 6.1 (11월) 5.9 **(12월) 0.2**

◇ '21년 가계대출 **증가율**은 **7.1%** 수준으로,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가계부채 **증가세가 점차 안정세**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

◇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가계부채(220조원)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,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앞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으며, 앞으로도 지속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이 과정에서, 서민·취약계층 등의 실수요 대출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.

# 1

## 개요

- '21.12월중 **소금융권** **가계대출**은 **0.2조원** 증가하였으며, 전월(5.9조원) 대비 증가폭이 큰 폭 축소되었습니다.
- '21년중 **소금융권** **가계대출** **증가율**은 **7.1%** 수준으로, 전년(8.0%)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.
  -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은, '21년 하반기부터 금융권 관리노력 강화, 한은의 두차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.

< 가계대출 증가액 및 증가율 추이(감독원 속보치 기준) >



- 그러나, 7.1%의 증가율은 명목성장률(6.2%<sup>㉞</sup>)을 초과하는 수준으로,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주요국 대비 여전히 **빨라**\*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

\* '가계부채/GDP 비중' 변화 비교('16년말 → '21.6월말, %)  
 : (한국) 87.3 → 105.8 (일본) 59.8 → 66.5 (프랑스) 57.1 → 67.3  
 (독일) 53.4 → 57.8 (영국) 85.7 → 86.9 (미국) 78.1 → 79.0

# 2

## 대출항목별 동향

- **(주택담보대출)** '21.12월중 **2.6조원** 증가하였습니다.
  - 주택 거래감소\*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**둔화**(11월 3.9조원 → 12월 2.6조원) 되었습니다.

\* 월별 전국 주택매매거래량(만건) : (8월) 8.9 (9월) 8.2 (10월) 7.5 **(11월) 6.7**

□ (기타대출) '21.12월중 △2.4조원 감소하였습니다.

- 연말 성과급 유입 등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 및 여전사 카드대출 축소 등으로 대출잔액이 △2.4조원 감소하였습니다.

### 3

#### 금융업권별 동향

□ (은행권) '21.12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△0.2조원 감소하였습니다.

- 주택 매매 관련 자금수요 감소로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, 전세대출(+1.8조원) 중심으로 2.0조원 증가하였습니다.

\* 은행권 주담대/전세대출 증감(조원) : ('21.10월)4.7/2.2 (11월)2.4/1.7 (12월)2.0/1.8

- 신용대출은 연말 성과급 유입에 따른 대출 상환 영향 등으로 △2.0조원 감소하였습니다.

□ (제2금융권) '21.12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.4조원 증가하였으며, 전월(3.0조원)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.

- 상호금융 주담대(1.7조원→0.9조원), 여전사 카드대출(△0.1조원→△0.6조원)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.

<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(조원, 감독원 속보치 기준) >

	'19년중 (1~12월)	11월	12월	...	'20년중 (1~12월)	11월	12월	...	'21년중 (1~12월)	11월	12월
은행	+60.8	+7.0	+7.2		+100.7	+13.6	+6.7		+71.6	+2.9	△0.2
제2금융권	△4.5	△0.2	+0.6		+11.5	+5.1	+2.1		+35.9	+3.0	+0.4
상호금융	△8.1	△0.9	+0.3		△0.1	+2.2	+1.0		+19.5	+2.2	+0.9
신협	△1.54	△0.25	+0.03		△1.45	+0.22	+0.16		+1.87	+0.94	+0.01
농협	△0.30	△0.29	+0.38		+4.24	+1.31	+1.08		+11.31	△0.14	△0.55
수협	+0.05	△0.07	△0.02		+0.08	+0.08	△0.01		+0.90	△0.04	△0.06
산림	+0.46	+0.03	+0.04		+0.28	+0.05	+0.04		+0.45	△0.01	△0.00
새마을금고	△6.80	△0.29	△0.13		△3.24	+0.53	△0.23		+4.95	+1.46	+1.52
보험	△0.8	+0.0	+0.3		+1.7	+0.8	+0.2		+5.4	+0.5	+0.1
저축은행	+2.4	+0.2	+0.0		+5.5	+0.9	+0.4		+6.3	+0.2	+0.0
여전사	+2.0	+0.4	+0.0		+4.4	+1.2	+0.5		+4.7	+0.1	△0.6
소금융권합계	+56.2	+6.7	+7.8		+112.3	+18.7	+8.8		+107.5	+5.9	+0.2

※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- '21.12월중 **소금융권** **가계대출**은 **0.2조원** 증가하였으며, 전월 (5.9조원) 대비 **증가폭이 크게 둔화**되었습니다.
- **주택담보대출** **증가폭**은 '21년중 **가장 낮은 수준**이며, **신용대출** 등 **기타대출**은 **대출잔액이 감소**하였습니다.
  - \* 소금융권 주택대 증가액(조원) : ('21.9월) 6.7 (10월) 5.2 (11월) 3.9 (12월) 2.6  
소금융권 기타대출 증가액(조원) : ('21.9월) 1.2 (10월) 0.9 (11월) 2.0 (12월)△2.4
- '21년 **가계대출** **증가율**은 **7.1%** 수준으로, **코로나19** 극복과정에서 급증했던 **가계부채** **증가세가 점차 안정**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.
- 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급증한 **가계부채(220조원)**가 **우리경제의 불안요인**이 되지 않도록, **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**에 앞서 **선제적으로 관리**해 왔으며, **앞으로도 지속 대응**해 나가겠습니다.
- **차주단위DSR 적용 확대\*** 등을 계기로 '**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, 빌리면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**'을 정착시켜 **가계부채가 시스템적으로 관리**될 수 있게 하면서,
  - \* 적용범위: ('22.1월~) 가계대출 총액 2억원 초과 차주 ('22.7월~) 1억원 초과 차주
  - **서민·취약계층** 등의 **실수요 대출**은 **원활하게 공급**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.
  - **전세대출 동향**을 면밀히 **모니터링**하며, **분기별 공급계획** **안분** 등을 통해 **중단없는 대출공급**을 유도하고,
  - **임주사업장**의 **잔금대출** 애로가 없도록 **지속 관리**할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